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진형익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회원 진형익입니다.

이렇게 계간 《기본소득》을 통해 회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고, 이번 호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세션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부담도 살짝 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에 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8년도쯤인 것 같습니다. 청년 단체에서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기본소득을 공부하게 되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학업에 있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학위 논문을 써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부분은 자원 마련 방안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원 마련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지속해서 해야 할 미션이라 생각하였고, 그렇다면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선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지도 교수님께서도 함께 관심을 두시고 설문의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주)한국갤럽에 의뢰해 설문을 진행하고,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위 논문은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진행하였고(2020년 3월 18일~24일), 조사에는 전국 성인 남녀(만 19세~64세) 905명이 응답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및 태도(찬성 유무)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기본소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47%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슈가 시작된 시기가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적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는 50%의 응답이 나타난 것을 통해 지금의 상황이 잘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본소득 인지도와 찬성률은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인지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체로 높았고 찬성률은 남성은 찬성하는 편, 여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경우 인지도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태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도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 그룹에서는 찬성/반대/보통이 큰 차이 없이 고르게 나타났지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 그룹에서는 찬성의 비중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 그룹에서는 보통과 찬성이 40%로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검토한 결과, 모든 그룹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월평균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그룹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 60%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7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그룹에서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3%로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 방법과 적정금액, 그리고 사용 목적

기본소득 지급 방법으로는 개인별 지급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고, 적정금액 수준은 50만 원 이하가 43.1%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적정금액 수준의 경우 50만 원 단위로 구간을 나눠 확인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25만 원 혹은 20만 원으로 구간을 나눠 확인했다라면 구체적인 금액 구간별 특징을 살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면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다만 생활비 다음으로 20대와 30대는 저축을, 40대는 새로운 일에 사용할 것으로 응답해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무분별하고 비생산적인 소비에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유발되는 세수의 증가와 재정 부담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 사항입니다. 따라서 응답자 특성에 따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인식은 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



인적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분할 경우 그룹 간 차이가 존재했는데요, 모든 그룹에서 부자 및 부유층을 통한 방안을 1순위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보수(27%)보다 진보(53%)의 비율이 2배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간접세를 고려하는 경우도 보수(23.5%), 진보(15.4%), 중도(25.7%) 간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구분	토지 및 건물세	금융 상품 세금	소득세	법인세	부자 및 부유층	간접세	기타	
전체	80 (8.8%)	47 (5.2%)	81 (9.0%)	84 (9.3%)	384 (42.4%)	199 (22.0%)	30 (3.3%)	
정치 성향	보수	13 (10.9%)	9 (7.6%)	12 (10.1%)	17 (14.3%)	32 (26.9%)	28 (23.5%)	8 (6.7%)
	진보	25 (8.4%)	10 (3.3%)	21 (7.0%)	35 (11.7%)	157 (52.5%)	46 (15.4%)	5 (1.7%)
	중도	42 (8.6%)	28 (5.7%)	48 (9.9%)	32 (6.6%)	195 (40.0%)	125 (25.7%)	17 (3.5%)

노동에 대한 의욕

기본소득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쟁점 사항은 자원 마련의 문제 외에도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 3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은 100만 원 미만의 금액이 적절한 기본소득 수준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50만 원 미만 43%, 50~100만 원 38%). 이는 1인당 최소의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100~150만 원 37%)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훨씬 작은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게 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기본소득을 받아도 일은 그만두지 않겠다는 의견이 28.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용이라 생각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를, 기본소득의 적정금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일반적인 사람(타인)과 본인 스스로 노동을 그만두게 될 기본소득 금액을 다르게 응답했는데요, 타인이 일을 그만두게 될 기본소득 수준은 150~200만 원이지만, 본인의 경우 훨씬 많은 금액인 3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이 노동 의사를 잃게 되리라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에 대한 인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잘 알게 될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의미인데요. 해외에서는 스위스와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많

은 세계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활성화 되어 관심을 지속해서 유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소득수준, 교육 수준 등에 따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저소득층, 젊은 연령대, 낮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도 쉽게 기본소득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을 고민해야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응답자 특성 중 정치적 성향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수적 성향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는 찬성/반대가 아닌 미루는 태도를 취할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해 진보적 성향 국민에게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기본소득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부여하고, 중도적 성향 국민에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 기본소득으로 인한 효과를 전달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보수적 성향 국민에게는 기본소득 도입 시 우려되는 쟁점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과장된 허위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공하여 합의점을 찾아간다면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이 커지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응답자의 특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찬성률은 40대와 5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0대와 50대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우호적인 태도는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번 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보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상당히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함께 고민해주시는 회원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원 마련 방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공론화시켜보고 싶은 것이 저의 앞으로의 관심사인데요, 앞으로 네트워크의 교육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면서 이루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진행한 월례 쟁점토론회, 기획 토론회, 계간 《기본소득》은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 심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 감사한 사업인데요. 물론 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잘 아카이빙 해준 덕분에 저의 개인 시간에 맞춰 챙겨 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연구 교육 사업과 교류사업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적, 담론적 노력을 진행 중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